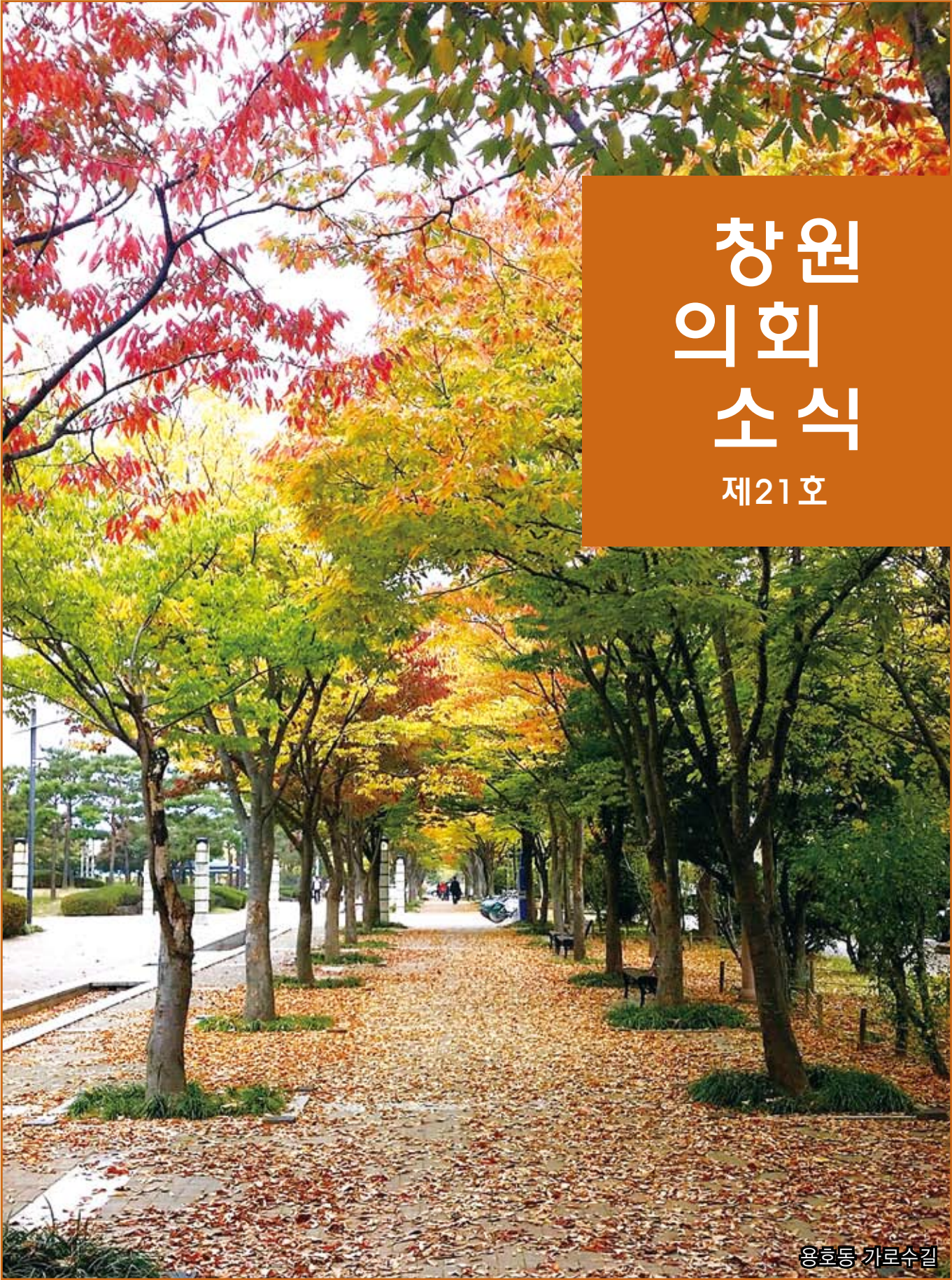




창원 의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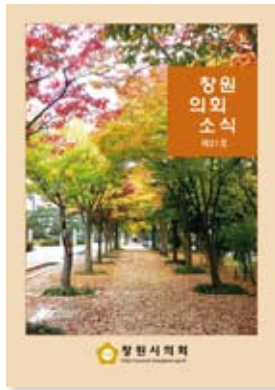
제21호

옹호동 가로수길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



창원의회소식

2016. 10월 (제21호)

발 행 인 창원시의회의장

발 행 처 창원시의회 사무국 055-225-5331~5

주 소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표지사진



의회소식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council.changwon.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창원시의회

CONTENTS / 목차

04	개 회 사
06	의원소개
10	인 터 뷰 • 의 장 • 부의장
13	주요안건 처리현황 • 제58회 제1차 정례회 (2016. 6. 7. ~ 6. 30) • 제59회 임시회 (2016. 7. 1. ~ 7. 6)
22	예산심의 활동
24	행정사무감사
26	시정에 관한 질문 & 답변 • 제58회 제1차 정례회(김동수 의원 등 4명)
28	5분 자유발언 • 제58회 제1차 정례회(김재철 의원 등 7명) • 제58회 제3차 정례회(이천수 의원 등 2명) • 제59회 임시회(박춘덕 의원 등 3명)
32	건의안 및 결의안
38	위원회 활동
43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50	언론 보도자료
64	의원 칼럼





의장 김 하 용

의장

존경하는 10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2대 창원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 동안 창원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시고, 뜨거운 축하를 보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오신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회의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신 여섯 분의 의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107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경제는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민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2대 후반기 창원시의회는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라는 의정목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종 연찬회와 연구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시찰활동을 통해 열심히 일하며, 연구하는 의회의 기본이 되는 의원역량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단순히 비판만 쏟아내는 의회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 속에서 호흡하고 소통하는,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창원광역시 승격의 국가적 정책 이슈화, 첨단산업 육성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문화예술 특별시 등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소통하고 협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의회에서 협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온 것처럼 향후 2년간의 후반기 의회에서도 대의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시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대 후반기 의회 첫 임시회인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연초 세웠던 주요업무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여 하반기에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장

김 하 용



부의장

김 종 대



의회운영위원장

정 영 주



기획행정위원장

김 현 일



경제복지여성위원장

이 옥 선



환경해양농림위원장

강 호 상



문화도시건설위원장

이 희 철

의회운영 위원회



정 영 주 의원



박 옥 순 의원



김 영 미 의원



노 종 래 의원



배 여 진 의원



이 천 수 의원



송 순 호 의원



박 춘 덕 의원

기획행정 위원회



김 현 일 의원



김 영 미 의원



강 장 순 의원



공 창 섭 의원



김 동 수 의원



김 석 규 의원



김 이 근 의원



김 태 웅 의원



노 종 래 의원



손 태 화 의원

경제복지여성 위원회



이 옥 선 의원



배 여 진 의원



김 삼 모 의원



김 재 철 의원



김 종 대 의원



노 판 식 의원



방 종 군 의원



유 원 석 의원



이 상 인 의원



정 영 주 의원



한 은 정 의원

환경해양농림 위원회



강 호 상 의원



이 천 수 의원



김 순 식 의원



김 우 돌 의원



김 장 하 의원



노 창 섭 의원



배 옥 숙 의원



송 순 호 의원



이 민 희 의원



전 수 명 의원

문화도시건설 위원회



이 희 철 의원



박 춘 덕 의원



강 영 희 의원



박 옥 순 의원



이 찬 호 의원



이 치 우 의원



이 해 련 의원



정 쌍 학 의원



조 영 명 의원



주 철 우 의원



황 일 두 의원





의장 김 하 용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을 놓고 야권이 수적 우세인 새누리를 이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후반기 구성에 대한 평가는?

먼저 제2대 창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107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 진해시와 통합 창원시 의회에서 3선 의원으로서 제2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의정활동을 하였음, 의정생활 속에서 의원들 간에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소신과 원칙을 갖고 활동하여 왔었고 이러한 인간관계를 밑 바탕으로 전반기에도 저 혼자만 부의장에 선출되고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모두 새누리당에서 차지 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저를 비롯하여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경제복지여성 위원장 등 모두 네 분이 의장단에 선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도 이제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창원시 의회를 이끌어갈 책임자에게 투표를 한 것이라 생각하며 후반기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어려운 서민을 위하여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단 다수석을 확보한 야권에 대한 의회 견제 기능 강화 등 기대도 많다. 안상수 시장 및 집행부와의 관계 등 향후 후반기 운영에 대한 계획은?

의장단 구성에서 야권이 다수석을 확보하였다고 당장 어떻게 의회운영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와의 관계, 감시와 견제를 하면서 집행부의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사전협의를 통하여 창원시가 발전 할 수 있는 비전등도 제시 하고 서로 상생 발전하는 길을 찾아 갈 것 입니다.

후반기에는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지원 할 것이며 생활현장에서 답을 찾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의정을 통하여 어려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전히 의원 수는 새누리당이 다수로, 의회 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이에 대한 의장으로서 역할은?

예전처럼 정파와 지역에 편성하여 상호간에 의견조율이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야당의원들이 의장단에 많이 선출되는 것을 보아도 정파와 지역에 구애되지 않고 의원들의 주관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어 소신과 원칙을 갖고 의원들과 소통하면 모든 것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으로써 의원들의 진정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특정사안에 대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여전히 지역구도에 따른 대립이 남아있다. 의장으로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은?

통합한지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역의 갈등이 남아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전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대한 애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주의보다 더 크게 창원발전을 위한다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소통함으로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합한 지역들을 봐도 아직까지 지역 간 갈등은 존재하고 있지만, 얼마나 조화롭게 갈등을 해소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입니다.

의장으로서 지역화합과 균형발전 속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반기 동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추진 사안이 있다면?

첫째 창원시의회를 열린 의회로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 할 수 있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간 화합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음. 이번 의장단 선거결과를 통하여 외부에서는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지만 통합 6년을 맞이 하였지만 아직까지 시민들과 우리의원들도 지역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회에서 여야 구분 없이 모두 하나 되어 화합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것이며, 현재 창원시의 당면과제는 창원광역시 승격,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문화예술 특별시로서의 문화예술 사업추진과 천해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해양사업등과 야구장건립, 구 39사단 부지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연구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서 전문성을 갖춘 의원으로 역량을 키워 나가고, 107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창원시의회운영을 위해 43명의 시의원이 중지를 모아 글로벌 도시로서 위상을 세우기 위하여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 종 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회 만들 터

“시민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한편,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복지정책 등에 대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부의장은 시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며,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현안사업에 대한 대안제시와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며, 앞으로 창원시의 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년이 창원시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민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6. 6. 7 ~ 6. 30. 24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예비비, 기금결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발 의 자 : 박춘덕 의원 등 11명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에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

■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조정과 위원회 명칭 변경을 위하여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 반대 건의(안)

- 발 의 자 : 정쌍학 의원, 김석규 의원
- 처리결과 : 찬성채택
- 제안이유

- 지난 4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 이념의 실현을 저해하고, 우리 통합 창원시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하향평준화 정책이라고 판단됨.
-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 해소는 한해 36조원을 초과하는 지방교부세의 적절한 배분과 조정교부금으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별도의 노력도 없이 단지, 배분방법의 변경만으로 지방재정 형평성을 높이려 하는 것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불만과 역차별만 야기할 뿐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전성을 급격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는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중단하도록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

- 발 의 자 : 배여진 의원
- 처리결과 : 찬성채택
- 제안이유

- 소재·부품산업 원천기술 발전은 국가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계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창원국가산단을 비롯한 우리지역 첨단산업 발전을 판가름하게 되는 요인임.
- 소재 부품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부설기관인 재료연구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율운영과 독자적인 연구개발, 단독 특허출원, 기술이전 제한 등으로 큰 애로를 겪고 있음.
- 늘어나는 소재분야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기술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재부문 종합 전문연구기관으로 승격을 통하여 지역과 국가 산업발전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임.

■ STX조선해양(주)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고용 위기지역 지정 건의안

- 발 의 자 : 박준덕 의원 외 21명
- 처리결과 : 찬성채택
- 제안이유
 - 최근 글로벌선사들의 해운동맹 재편 움직임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조선 해양 분야 업종에서는 150개 기업체에서 20,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조선산업 경기침체로 위기 관리 능력이 취약한 하청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실직, 임금체불, 전직, 재취업 등으로 창원 지역의 조선업계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직면해 있음.
 - 특히,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진 경남지역 항토기업인 STX조선 해양(주)이 2013년 자율협약 체결 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지만 결국 지난 5.27일 법정관리로 전환되면서 지금의 창원시는 통합으로 인한 재정자립도의 하락으로 창원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 진행될 것이며, 특히 진해구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파산수준으로 조속한 대책이 절실함.
 - STX조선 해양(주)는 창원 진해구의 핵심성장 동력이며 중형급 에코십으로 석유화학운반선 PC 탱크와 세계최초로 수주한 LNG병크링 전용 선박건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STX에 대하여 청산이 아닌 우선 회생절차를 촉구함.
 - STX조선해양(주) 정규직 및 협력업체 직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비하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분야 등 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함.

■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찬성채택
- 제안이유

제5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2015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5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9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은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바이오에너지 생산·판매를 통한 세입증대와 폐기물의 에너지화에 부합하는 사업에 해당됨.
 - 시설공정은 토목, 건축, 환경, 전기, 제어 등 복합플랜트 설치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고도의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한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으로 추진코자 함.
 - 「지방자치법」제104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 광암항 어항 기본시설 부족에 따른 시설확충 및 정온도 개선, 매몰방지 등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 정비 사업 추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4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발 의 자 : 김헌일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 시민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i잉글리시 해외영어캠프 및 화상영어 참가자의 자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 저소득학생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자치법규 등을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 도모

■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군입영 자녀 및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된 불필요한 중복조항 삭제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비상대비 관련 총무계획, 통합방위 등 이원화된 관련 업무를 비상대비업무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과로 일원화하고,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종류를 추가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함.

■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 보건복지부 고시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2조(운영세칙)에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도·소매업자(중소제조업체)간 영업활동 분쟁 및 인근 지역 주민간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매년 시행하고 있는 올해의 최고 경영인 및 근로인 상 선정시기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이달의 최고 경영인 및 근로인 상 선정시기를 반기별로 시행함으로써 시상의 가치와 위상을 한층 격상시키고 기업인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산업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이 기업과 시민에게 기업지원 기관의 이미지로 이해되기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기업지원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맞도록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문화재단에 비엔날레 행사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려는 것임.

▣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폐지 등 회계운용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하려는 것임.

▣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 균등분 개인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보통교부세페널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 발 의 자 : 송순호 의원 등 10명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내 노거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김하용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대지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주민공람 및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자 함.

▣ 창원시 보전산지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산림청에서 일부 보전산지 해제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존치하고 있는 지역을 토지적성평가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하고자 창원시 보전산지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부지의 불필요한 미관지구를 축소하고 인접한 미개발된 부지의 현상설계에 의한 창의적 개발을 위하여 창원복합문화타운 조성 및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에 따라 공모계획의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미관지구 축소하기 위하여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입안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가음8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 가음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1980~1990년 당시 건축된 노후불량주택으로 건축물 및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과 안전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구역 내 기능을 재정립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관리 도모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 의장 선거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1명을 선출하기 위함.

▣ 부의장 선거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 1명을 선출하기 위함.

▣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함.

◆ 제5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6. 7. 1. ~ 7. 6. 6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제2대 창원시의회 하반기 상임위원 선임 및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함.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 위함.

▣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제 출 자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계획서로써 본 조사의 목적은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창원시 도시개발 정책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김헌일 의원, 강영희 의원 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 및 보임코자 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 일 시 : 2016. 6. 7. (목) [제58회 창원시의의회 제1차 정례회]
- 위 원 수 : 9명
- 안 건 명
 - 2015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명단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비 고
박준덕	배옥숙	김헌일, 황일두, 이희철, 김우돌, 김이근, 이찬호, 노판식	

위원회 활동 내역

- 제1차 회의 (2016. 6. 7.)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제2차 회의 (2016. 6. 24.) : 안건제안 및 사항별 설명 청취 · 심의 및 계수조정, 의결
 - 2015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 2015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정가결

예산심의 활동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실수납액 ①	지 출 액 ②	세계잉여금 ①-②
계	3,024,885,244,934	3,021,192,368,890	2,393,789,833,346	627,402,535,544
일반회계	2,217,088,131,410	2,216,913,439,765	1,914,651,325,737	302,262,114,028
특별회계	807,797,113,524	804,278,929,125	479,138,507,609	325,140,421,51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안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건수	지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4	4,029,181,000	3,468,324,450	3,468,324,450	311,143,020	249,713,530
일반회계	12	2,296,967,000	1,738,458,320	1,738,458,320	311,143,020	247,365,660
특별회계	2	1,732,214,000	1,729,866,130	1,729,866,130	0	2,347,870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안

총 괄

(단위 : 천원)

기 금 수	전년도말 조성액 ①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109,429,187,490	24,071,671,405	42,641,197,837	18,569,526,432	133,500,858,89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계	2,756,212,375	2,530,809,801	225,402,574	8.91%
일반회계	2,098,249,090	1,913,573,517	184,675,573	9.65%
특별회계	657,963,285	617,236,284	40,727,001	6.60%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괄

(단위 : 천원)

구분	기금수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운용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 입	지 출		
당초	14개	126,206,175	20,254,890	50,473,254	95,987,811	△ 30,218,364
변경	14개	133,500,858	36,573,640	66,684,648	103,389,850	△ 30,111,00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 요

- 감 사 반 : 상임위원별로 구성
- 감사범위 : 2015. 5. 1. ~ 2016. 4. 30.
- 감사기간
 - 의회운영위원회: 2016. 6. 8.(수) ~ 6. 16.(목) - 9일간
 - 기획행정위원회: 2016. 6. 8.(수) ~ 6. 16.(목) - 9일간
 -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 2016. 6. 8.(수) ~ 6. 16.(목) - 9일간
 - 환경해양농림위원회 : 2016. 6. 8.(수) ~ 6. 16.(목) - 9일간
 - 도시건설위원회 : 2016. 6. 8.(수) ~ 6. 16.(목) - 9일간
- 대상기관 : 담당관, 실·국·사업소·센터, 보건소, 구청, 소방본부,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 지적사항 집계표

위 원 회 명	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비 고
계	154	132	22	
의 회 운 영 위 원 회	5	3	2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1	2	19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38	37	1	
환 경 해 양 농 림 위 원 회	47	47		
도 시 건 설 위 원 회	43	43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8회 창원시 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2016. 6. 22. (수) 10:00 ~)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노 창 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창원 중앙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 경남개발공사의 일방적인 창원 중앙 역세권 상업용지 분양에 대한 대응책은?

답변 | 시설면적을 줄이거나 필지를 줄이는 방안등을 검토하였으나 국토부에서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불가 되었고, 경남개발공사에 공문도 보냈지만 상업용지가 축소 되면 손실이 발생해 재협의를 하지 못하였음. 관련 법률이나 협약서를 보면 강제적 방안이 마땅치 않고 분양받은 상인들의 재산가치 하락 때문에 축소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 후 상권이 형성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질문 | 인근 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은?

답변 | 상업용지계획은 가능한 한 수요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하도록 하겠음. 그런데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실입주자가 입주하는 데까지 보통 10년 정도 소요되기에 10년 이후의 경기나 인구를 추계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음.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인구를 과대 추계하는 그런 분위기는 남아 있으나, 가능한 현실을 철저 하게 반영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는 현실에 맞는 계획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음.



송 순 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교차로 및 버스정류장 주변 사고 대책과 은상이 샘 철거 논란과 관련하여

질문 | 교차로 및 버스정류장 주변 사고에 대한 대책은?

답변 | 위험성이 있는 승강장이나 교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하겠음. 7월에 전수 조사를 해서 관리방안 대책을 마련할 것임. 중단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기에 내년 부터라도 본예산에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질문 | 은상이샘 철거 논란에 대한 시의 입장은?

답변 | 은상이샘 철거는 불가하다. 은상이샘 관련한 자료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두산백과사전이라든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이라든지 여기에도 은상이샘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 기존 자료들을 부정할 수 없음. 78년 4월 6일 동아일보에서도 신팔도기 마산편에도 은상이샘이 불리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82년도 경남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은상이샘이라고 불리어졌다라고 표기되어있음. 이런 자료들이 있기에 지금 시점에 와서 고증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임.

북동 공설시장 정상화 방안, 주남저수지 유수지의 효율적 관리, 대산면 제동 공원 내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최윤덕 장상 현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 북동 공설시장은 시장 기능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 인근 의안민원센터 일원에 독립만세 운동 기념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

답변 | 광장 조성에는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며 주변 주택 매입에 많은 예산 (200여억)이 소요되기에 큰 예산을 투입하여 광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북동시장이 살아 난다것에는 회의적임 차후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대안제시가 충분해야 함

질문 | 주남저수지 유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태촌 등 조성 추진에 대한 견해는?

답변 | 시에서 주남생태관광지 TF팀을 구성하여 유스호텔 또는 체류형 관광을 하기위한 친환경적인 지역, 생태존 조성 검토를 하고 있음.

질문 | 대산면 제동공원 내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답변 | 도시근린공원의 법률적 제약에 따라 사실상 주민운동장 건립은 불가능함.

질문 | 최윤덕 장상 현향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는?

답변 | 최윤덕 장상 현향사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 동 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서성동 집결지 문제 해결 방안, 가포신항 배후부지 공해유발업종 허가 관련 주민반발 대책, (주)부영의 주택개발 사업에 대한 시의 판단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 | 서성동 집결지 문제 해결방안으로 TF팀을 구성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음. 용역에 따른 계획입안과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루속히 하여야 하는데 시의 방향은?

답변 | 성매매특별방지법 시행이후 각종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였으나 어려움이 많음. TF팀을 구성하여 올해 1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토론하였음. 개발계획으로 공원으로 개발시 500억의 예산이 부담되며, 공동주택지 개·용역실시 결과 타당성과 수지가 맞지 않아 사업이 한계에 부딪힘. 자체개발을 유도하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성매매 탈여성화를 시켜 줄어나갈 계획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음.

질문 | 가포신항 배후부지 공해유발업종 허가 관련 주민 반발 대책은?

답변 | 문제는 소음과 대기오염 물질 두가지 임. 공장의 이전시 부지2만평으로 총사업비 500억으로 현실적으로 이전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움. 학생들 학습권, 주민건강권을 최대한 보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다른 문제들도 전부 재검토해서 원만하게 해결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질문 | (주)부영의 계속적인 주택개발 사업에 대한 시의 종합적인 판단과 대책은?

답변 | 해양신도시에 대한 기본입장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문화도시를 만들어 관광으로써 우리 창원의 경제뿐만 아니라 마산의 경제까지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관광지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입장임. 적어도 그곳을 지금 시민단체가 걱정하거나 또는 의원 여러분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주거단지의 숲을 만든다거나 또 상업지역의 숲으로 만들지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고, 부영의 계획서가 7월 30일까지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부영과의 관계를 끊을 것임.



이 옥 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5분 자유발언



제58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6. 7. 금)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재 철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시민 복지를 위한 수목장림 건립해야”

장사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은 화장문화 정착에 따른 봉안수요의 급증으로 해마다 많은 예산이 증가될 것이다. 수목장림은 국토 잠식의 폐해가 큰 일반 매장 묘나 납골당, 봉안당과는 달리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장법이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또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수목장림 건립을 준비하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다.



박 춘 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신항사업소 승격하는 적극적 대응 필요”

신항만은 건설지역의 약 80%가 진해구에 속하지만 부산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신항 개발 이익에서 창원시가 소외되고 있으며, 생활 불편 등 피해만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 신항사업소의 설치에 환영할 일이나 신항사업소를 해양수산국 산하 항만 물류조정실로 승격해 창원시가 동북아시아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치 우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한 대책수립을”

당초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부지의 웅동복합단지 조성 사업권을 가진 진해 오션리조트는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웅동복합단지 1단계 준공기한을 2년 이상 연장해야 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손실부담을 경남도와 창원시가 부담하여야 한다. 진해구민의 상실감을 빨리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대안사업을 하루 속히 실행해야 한다.



김 태 응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STX조선 공적자금 내역 공개하라”

지난 2013년 자율협약 이후 STX조선에 공적자금 4조 5000억이 투입됐으나 순수하게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8000억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STX조선은 공적자금 내역을 공개하고 청산이 아니라 회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 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 옥 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외계층 생리대 구입 대책 마련하라”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온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했다는 소녀에 대한 사연 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여성의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과 보장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시에서도 물품 후원 등 대상자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 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하라.



김 동 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계동 양묘장에 주차장 조성해야”

의창구 소계동의 주차 문제는 심각하지만 부지 확보가 어려웠다. 동읍 화양리 단감테마공원의 공공청사부지가 해제됨에 따라 양묘장을 단감테마공원으로 옮기고 양묘장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을 제안한다. 의창구 북면 외감리 폐교를 활용해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건립하고 농촌 체험마을인 오체향 마을에도 조속히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



한 은 정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개선책 마련을”

창원시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상태와 시공 중인 현장을 보면 창원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관심과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예규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점자블록 설치 및 개선 작업 제대로 시공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5분 자유발언요약



제58회 창원시 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6. 6. 27. 월)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 수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구산면 119소방안전센터 설립해야”

마산합포구 구산면 119소방안전센터의 설립을 건의한다. 구산면 내포·반동 마을은 중앙119소방안전센터와 17~18kms 떨어져 출동에 30분 이상 소요된다.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구산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9소방안전센터 건립을 요청한다.



김 중 대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지방재정 개혁의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창원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악화를 낳고 있다. 주요현안 사업과 숙원사업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며, 이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해야 한다.





제59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7. 6. 수)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춘 덕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육대 부지에 창원교육지원청 이전을”

진해구 옛 육대 부지에 창원교육지원청 확장 이전을 촉구한다. 통합 창원시 222개 학교에 학생수 13만5000여명을 창원교육지원청 하나로 지도 관리하고 있다. 육대 부지 1만㎡를 도교육청에 양도해 창원교육지원청을 확장 이전하고 석동주민센터를 진해민원센터로 이전할 것을 제안한다.



전 수 명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진해경제 크루즈 관광으로 되살리자”

진해구에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크루즈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한다. 진해 웅동 복합단지 잔여부지에 주차, 쇼핑, 관광 등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크루즈 테마파크를 개발해 진해오션리조트와 연계한다면 개발 제한을 받는 부산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 천 수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만 제외해야”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서민 경제와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판매손실액이 10조원에 달한다. 열악한 국내 1차 산업을 고려해 농축수산물만큼은 반드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STX조선해양(주)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고용 위기지역 지정 건의안

지난 40년간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계 산업을 선도해 온 창원시는 경남의 중심 도시로 관내 4,50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심에서 국가 경제를 견인하여 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선사들의 해운동맹 재편 움직임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조선 해양 분야 업종에서는 150개 기업체에서 20,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조선산업 경기침체로 위기관리 능력이 취약한 하청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실직, 임금체불, 전직, 재취업 등으로 창원 지역의 조선업계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진 경남지역의 향토기업인 STX조선해양(주)이 2013년 7월 자율협약 체결 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지만 결국 지난 5.27일 법정관리로 전환 되면서 협력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당시, 채권단은 4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면서 인력 설비 등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규직 3,600명에서 2,100명으로 무려 3년 동안 1,500여명이나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감행한 바 있었고, STX조선해양(주)은 자구계획을 수립

하여 올해부터 경영진은 임금과 인력, 복지혜택을 추가로 더 축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구조조정이 73개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주어 감원되는 직원이 4,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수주 물량이 소진되는 2017년 부터는 협력업체도 물량이 없어 직원들이 대량 고용상실 위기에 처해 있어,

정부와 채권단이 조속한 시일 내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며, 특히 창원시는 통합으로 인한 재정자립도의 하락으로 창원경제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며 특히 진해구의 경제 파급효과는 파산 수준으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STX조선해양(주)은 진해구의 핵심성장 동력이며 중형급 조선소로써 석유화학운반선 PC 탱크 건조기술력과 세계최초로 수주한LNG 벙크링 전용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형급 조선소를 청산한다면 과거 일본이 중형조선소를 청산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구조조정으로 세계1위의 조선강국 자리를 우리나라에 내어준 전철을 잊지 말아야 하며 법정관리 수순을 밟고있는 STX에 대하여 청산이 아닌 회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108만 창원시민을 대표해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일동은 STX조선해양(주) 정규직 및 협력업체 직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특급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STX조선해양(주)의 법정관리 회생절차 촉구와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분야 등 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고용 위기지역 지정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6. 6. 7.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한국재료연구원”승격 건의안

다 같이 잘 사는 창조경제 실현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님과 장관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원시는 1970년대부터 마산자유무역지역과 창원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민·학·연·관이 협력하여 기업 사랑을 넘어 섬김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기계산업 중심인 지역산업에 IT/SW융·복합으로 첨단화함이 관건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기관과 연구기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1993년 창원에 있던 한국기계연구원이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불편과 애로 속에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계산업에서 첨단소재 경쟁력은 부품완제품 성능과 부가가치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재·부품 업체들이 부품과 완제품을 생산하면 시험·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이 여러지역에 분산되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심대한 애로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가상승과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재·부품 연구와 시험·인증을 하는 재료연구소가 있어 기업민원 해소와 기술 지원을 하고 있어 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만, 재료연구소는 인력과 예산대비 기술료 및 1인당 SCI급 논문 건수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자율경영과 단독 특허출원, 기술이전, 과제신청 자격 등에 제한을 받으며, 늘어나는 연구과제 때문에 원활한 기업지원을 위한 연구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우리시 진해구 중심지역에 제2재료연구소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 시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여 지역 상공계와 학계, 언론계 등에서 오래 전부터 낙후된 기계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소재·부품연구, 시험·인증 분야를 총괄하는 연구원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간절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가발전을 선도할 “한국재료연구원” 승격을 통하여 지역 뿌리산업인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기계산업 첨단화를 가속화하여 지역 및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소재분야 종합 전문연구기관 육성을 통해 다양한 소재 관련 연구기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소재연구와 연구역량 강화를 통하여 소재분야 선진강국과의 경쟁력 확보로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창조적이고 우수한 제품 개발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이 곳 산업전진기지 창원이 명실상부한 기계공업 메카로 재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열거하기 힘들 만큼 폭발적인 성장동력을 가지고 침체된 기계공업도시 창원에 활화산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108만 시민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님과 장관님, 산업전진기지 창원이 다 함께 잘 사는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시켜 주실 것을 108만 창원시민을 대신하여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6. 6. 7.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 반대 건의 안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창원시의 연간 약 500억원의 자주재원을 감소시키는 재정 테러 행위로서 창원시 중·장기 재정계획 수정은 물론 주민숙원 사업 등 가용재원 확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게 자명하다.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개혁안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급격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유지해온 지방재정역량을 하향 평준화 시킬 것이다. 특히 100만 대도시 규모의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갇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통합 창원시를 역차별하는 개악안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인 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도 없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금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창원시 자치재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동시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통합 창원시의 연착륙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창원시 의원 일동과 창원시민들은 행정자치부의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간섭하여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력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
1. 창원시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라.
1. 우리 창원시 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

2016. 6. 7.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철)는 제5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5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6년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제5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7. 1 ~ 7. 6. (6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영주)는 제5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비롯하여 6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 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6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9. 1 ~ 9. 9.(9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 ▷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 ▷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인 진해구 명동 산 116번지 일원인 남포유원지 삼포지구 현지를 방문하였다.또한,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 ▷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창원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원안가결하였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헌일)는 후반기 첫번째 회의인 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 ▷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김영미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안,
 - ▷ 2016년도 제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 ▷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또한,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 ▷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 ▷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
-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이옥선)는 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 ▷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건을 처리하였으며,
 -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 환경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이치우)는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간중
 -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47건의 잘못된 부분 적발 및 처리를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 ▷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 ▷ 송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또한, ▷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 ▷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수정가결하였다.
- 환경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강호상)는 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 ▷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 ▷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 또한, ▷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또한, 2015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
 - ▷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 ▷ 창원시 보전산지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 가음8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 ▷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부대이견첨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
- 문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희철)는 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 ▷ 부위원장으로 박춘덕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또한, 각 부서의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다.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6월 7일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 6월 7일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6월 8일 창원시 대표음식 시식 및 품평회 참석



▲ 6월 10일 2016 시민 300인 원탁토론



▲ 6월 14일 기획행정 위원회 진해구 남포유원지 현장 방문



▲ 6월 15일 팔용 터널 착공식



▲ 6월 15일 팔용터널 착공식



▲ 6월 16일 제189회 경남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정례회



▲ 6월 17일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창원시민 규탄대회



▲ 6월 23일 창원단감테마파크 개장식



▲ 6월 23일 창원단감 테마파크 개장식



▲ 6월 25일 웅동2동민 어울림 한마당 참석



▲ 6월 27일 용지동 주민 자치회 의회 방문



▲ 6월 28일 연도 신항랜드마크사업 조속 시행 촉구 결의대회 참석



▲ 7월 1일 시민의날 기념식 문화예술 특별시 창원 선포식



▲ 7월 1일 시민의날 기념식 문화예술 특별시 창원 선포식



▲ 7월 1일 제2대 후반기 의원 구성



▲ 7월 1일 제59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개최



▲ 7월 4일 39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최



▲ 7월 4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업무보고



▲ 7월 4일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 7월 4일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 7월 4일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업무보고



▲ 7월 5일 용원주민운동장 개장준비위원회 회의개최



▲ 7월 6일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 7월 7일 제21회 양성 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 한마음 다짐대회



▲ 7월 7일 제21회 양성 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 한마음 다짐대회



▲ 7월 14일 청소년 의회 진행교실



▲ 7월 18일 구암고등학교 청소년 의회 진행 교실



▲ 7월 22일 39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



▲ 7월 22일 일본구레시 중학생 홈스테이 참가자 본회의장 방문



▲ 8월 22일 창원시 어린이 안전학교 안전제로 비전 선포식



▲ 8월 23일 의장단 을지훈련 근무자 격려 방문



▲ 8월 24일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칠서정수장 현장방문





▲ 8월 26일 마산어시장 축제 개막식



▲ 8월 29일 39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조사 위원회 회의



▲ 8월 30일 농협경영인 창원시 연합회와 농업기술 센터 간담회



▲ 8월 30일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 심사 개최



창원시의회 제5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는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각종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6월 7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을 하게 된다. △6월 22일 제2차 본회의

에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의 건 및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는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되며, △6월30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각종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유원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달이 되기를 기원하며,



제2대 창원시의회 개원 후 전반기 의회 2년 동안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 후반기 의회에서도 시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통합으로 광역시급 규모를 갖춘 우리시가 이에 걸 맞는 행정자치권이 결여되어 대도시 행정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와 시 재정부담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는 물론 전 시민이 단결된 힘을 발휘하여 창원 광역시 승격을 통해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의 확대를 창원의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24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추경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각종 현안사업 등이 내실 있게 집행되었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점검할 것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발전을 위해 시민의 바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하는 등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의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동료의원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집행기관에도 감사를 전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였다.

창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춘덕 의원” 선임



창원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춘덕(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배옥숙(비례) 의원을 6월 7일 각각 선임하였다.

예결특위는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박춘덕(의회운영위), 김현일·황일두(기획행정위), 배옥숙·이희철(경제복지문화여성위), 김우돌·김이근(환경해양농림위), 이찬호·노판식(도시건설위)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다.

박춘덕위원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결특위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원장에 송순호 의원 선임



경남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순호 의원(내서읍)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부위원장에 주철우(경제복지문화여성위, 팔용·명곡동)의원, 위원에 박춘덕(의회운영위), 김현일·김석규(기획행정위), 김삼모(경제복지문화여성위), 강영희·전수명(환경해양농림위)의원을 선임했다.

송순호 위원장은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39사 부지협약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 해소는 물론 39사 부지 개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 진해 남포유원지 내 리조트 건립 토지매입 현장방문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쌍학)에서는 제58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4일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 진해구 남포유원지 내 리조트 건립 토지매입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 하였다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대규모 관광객 유치 등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이미지 제고 등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었다

위원들은 리조트 개발을 통한 관광객 외부유출 방지 및 국내외 관광객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및 기금변경안 의결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덕 의원)는 6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시 예산은 예산 3조 249억원, 세입 3조 212억원, 세출 2조3,938억원, 사업예산 이월액은 3,12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66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8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창원시의 대책을 집중 추구하고 앞으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촉구 하였으며 ▶ 세출분야는 집행잔액 과다발생,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으로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하여 지적하고 예비비, 예산의 변경 및 전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다.

또한, 지방세입 증대 방안 마련 등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향후 보다 면밀하고 엄격한 재정계획 수립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박춘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 승인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201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 도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창원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보다 2,254억원 (8.91%)이 증액된 2조 7,562억원을 편성해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관 심의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시경제(용원) 특화 홍보탑 제작”1건, 2억 1천만원을 증액하고, 특히, “창원상상길 빛의거리 조성사업” 등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 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증액 필요시 차기 추경예산에서 심의한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 나머지는 각 위원회가 제출한 예비심사안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창원시의회 제2대 하반기 의장단 선출



통합 제2대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6월30일 14시에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의장단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의장에는 김하용(무소속) 의원이 1차 투표에서 22표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으며, 부의장으로는 김종대(더민주) 의원이 1차 투표에서 29표를 받아 당선되었다. 이어 실시된 상임위원회위원장 선거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에 정영주(무소속)의원(1차투표, 22표 획득)이,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에 김현일(새누리)의원(1차, 26표 획득)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옥선(무소속)의원(2차, 22표 획득)이, 환경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은 강호상(새누리)의원(2차, 22표 획득)이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희철(새누리)의원(2차, 27표 획득)이 당선되었다.



제2대 창원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개최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창원시의회(의장 김하용)는 7월1일,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제5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위원회별 구성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김현일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에 김영미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동수, 공창섭, 김석규, 강장순, 노종래, 김이근, 손태화, 김태웅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이옥선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에 배여진 의원이 선임됐으며 정영주, 김삼모, 김재철, 배여진, 한은정, 유원석, 김중대, 노판식, 이상인, 방종근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강호상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에 이천수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우돌, 김장하, 송순호, 전수명, 김순식, 배옥숙,

이민희, 노창섭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문화건설도시위원회는 이희철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에 박춘덕의원이 선임됐으며 이찬호, 주철우, 강영희, 박옥순, 황일두, 조영명, 이해련, 이치우, 정쌍학의원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각 상임위에서 2명씩 추천해 구성하는 의회 운영위원회는 정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에 박옥순 의원이 선임 됐으며 기획 행정위원회에서 노종래, 김영미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는 배여진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는 이천수, 송순호 의원, 문화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박춘덕 의원 총 8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창원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나갈 김하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라는 의정목표를 위해



의원역량 강화에 주력하여 전문성을 갖춘 정책 의회를 만들고,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시민들 속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창원시의회, 청소년모의의회 진행교실 운영

창원시의회(의장 김하용)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안내로 청소년과 함께 소통하고 시정을 열어가는 창원시의회 특수시책인 청소년 모의의회 진행교실이 안남중학교 학생 38명이 참가한 가운데 14일 개최 됐다

올해 첫해를 맞이한 청소년모의의회 진행 교실은 “안남중학교 9시등교”건을 상정하여

열띤 토론 광장을 열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미래 지역의 꿈나무로 성장할 어린이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 의사진행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의식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 창원시의회 방문



창원시의회(의장 김하용)는 지난 7월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의 방문을 맞이하였다.

이번 학생 방문은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자매결연도시인 히메지시 중학생 12명과 인솔자 1명 등 총 13명이 창원지역 민박가정에서 직접 숙박하고 시청 및 의회를 방문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2001년부터 매년 양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양국의 생활상과 각종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홈스테이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주남저수지, 해양신도시, 로봇랜드 등 현장에서 발전방안 모색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위원장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소관부서 주요사업 현장인 단감테마공원, 주남저수지, 해양신도시, 마산로봇랜드, 창원 음식물류자원화처리장, 대산정수장과 강변여과수 취수현장을 방문하고 향후, 신항과 웅동복합레저단지, 덕동하수처리장 등 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현장은 지난 19일부터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주남저수지를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생태적 가치와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호 대화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환경부의 국비지원과 지역주민, 환경단체간 대립에서 상호 발전방향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마산 해양신도시현장과 로봇랜드현장을 방문하여 총사업비 7,000억원을 투입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일대 126만㎡의 로봇랜드 1단계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2018년까지 로봇 R&D센터, 로봇전시관, 로봇시험장 등 공공 인프라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세계최초 로봇테마파크를 조성하는 2단계 호텔, 콘도 등 민간시설을 2019년까지 계획대로 건립하여 로봇기술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로봇 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여 창원을 국내 로봇 산업을 선도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조했으며 인근의 구산해양관광단지, 남해안 섬을 연계하는 새로운 해양관광 비즈니스모델 창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남로봇랜드재단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은 앞으로 “민원 발생 예상지역과 주요 사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의회의 가교역할과 함께 현장을 살펴가며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좋은조례연구회, '16년 하반기 연구활동을 위한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노판식)’는 26일 좋은조례연구회 회원(정영주, 이찬호, 이해련, 강영희, 노종래, 김이근, 조영명, 배여진, 이민희)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회 주관으로 올 하반기에 계획 중인 ‘시민 민생 조례안 공모전(가칭)’의 추진방향 설정과 하반기 연구회 주요 활동계획에 대한 사항 등이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정례모임을 통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토론회와 강연회 등을 통해 의원 전문성 향상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례 개선 방안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제(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며,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이옥선)는 7월 27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실에서 복지여성국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민불편 사항 해소 및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옥선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시책을 발굴하고 시정에 접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의회와 지속적 의견교환을 통해 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창원시 시설관리물 위탁에 관한 연구회 하반기 연구활동을 위한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창원시 시설관리물 위탁에 관한 연구회(대표의원 김종대)’는 27일 연구회 회원(손태화, 김현일, 공창섭, 김석규, 김삼모, 김장하, 송순호)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창원시 시설관리물 위탁에 관한 연구회는 위탁

시설물에 대한 위탁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검토를 주요 활동 목표로 삼고 창원스포츠파크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연구·검토하기 위해 2014년 10월에 출범된 의원연구단체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연구회 추진 방향과 주요 활동계획에 대한 사항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낙동강 녹조발생에 따른 칠서정수장 먹는물처리 현장점검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강호상과 위원들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낙동강에 녹조발생 조류경보제의 관심단계가 발령되는 등 녹조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4일 칠서정수장을 방문하여 녹조발생에 따른 정수처리 등 주요과정을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고도정수처리 등 먹는물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서는 수온 상승으로 녹조 현상이 낙동강 전역으로 확산된 가운데 영남권의 식수원인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남조류 개체수가 8월 22일에는 mL 당 63,555개로 나타나 조류 경보제의 하나인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칠서정수장은 수온상승에다 상류 보의 펄스 방류로 취수단계에서부터 물리적 방법으로 조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취수구 주위에 60m짜리 차단막을 설치한데 이어 물결을 일으켜 녹조 접근을 막는 수차 형태의 수면교란장치와 취수구 쪽으로 물을 뿜어 녹조를 밀어내는 살수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수처리과정에서는 화학적 처리를 위해 조류가 잘 응집하도록 취수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주입 후 조류에서 나오는 흙·곰팡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지오스민이나 2-MIB를 오존처리로 제거하고 있다.



하루 22만~23만톤의 낙동강물을 정수해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칠서정수장의 임영성 환경연구관은 “낙동강 원수에 들어있던 녹조 발생 생물인 클로로필-a, 지오스민, 2-MIB 등이 고도 정수과정을 거치면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강조했다며, 강호상 위원장은 “취·정수장에서 조류 독소 수질측정 주기를 강화하고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하는 고도 정수처리 시설로 안전한 시민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통시장 현장 방문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이옥선)는 최근 영업매출이 저조함에 따라 창원시에서 상권 활성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활성화 해법 찾기에 나선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마산부림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통해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 나갈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있는 “청춘 바보몰”을 방문하여 현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의견청취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상남시장 “대끼리 야시장”등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전통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및 대안제시 등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STX조선해양 회생대책 마련해야

박 춘 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근 글로벌 선사들의 해운동맹 재편 움직임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조선·해양 분야 업종에서는 150개 기업체에서 2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조선산업 경기침체로 위기관리 능력이 취약한 하청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실직, 임금 체불, 전직, 재취업 등으로 창원 지역의 조선업계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다.

특히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진 경남지역의 향토기업인 STX조선해양(주)이 지난 2013년 7월 자율협약 체결 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지만 결국 지난 5월 27일 법정관리로 전환되면서 협력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당시, 채권단은 4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면서 인력 설비 등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규직 3600명에서 2100명으로 무려 3년 동안 1500여명이나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STX조선해양(주)은 자구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경영진은 임금과 인력, 복지혜택을 추가로 더 축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구조조정이 73개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줘 감원되는 직원이 4000

여명에 이르고 있다. 수주 물량이 소진되는 2017년부터는 협력업체도 물량이 없어 직원들이 대량 고용상실 위기에 처해 있어 정부와 채권단이 조속한 시일 내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창원시는 통합으로 인한 재정자립도의 하락으로 창원경제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며 특히 진해구의 경제는 파산 수준으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STX조선해양(주)은 진해구의 핵심성장 동력이며 중형급 조선소로서 석유화학운반선 PC탱크 건조 기술력과 세계 최초로 수주한 LNG병크링 전용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중형급 조선소를 청산한다면 과거 일본이 중형조선소를 청산하고 정부주도의 획일적 구조조정으로 세계 1위의 조선강국 자리를 우리나라에 내어준 전철을 잊지 말아야 하며,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STX조선해양(주)에 대해 청산이 아닌 회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STX조선해양(주) 정규직 및 협력업체 직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급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STX조선해양(주)을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분야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고용 위기지역 지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창원교육지원청 확장·이전 방안 제안

박 춘 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언론사 게재

경남 창원시에는 222개 학교에서 학생 13만 5000여 명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도내 일부 군에 비해 학교 수로는 10배, 학생 수는 무려 60배가 넘는다. 한데 이들 학교와 학생 지도·관리는 창원교육지원청이 모두 맡고 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5765㎡ 터에 건물 면적 452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11명이 근무하고 있다. 업무공간이 협소한 것은 물론이거와 건령이 35년이나 돼 노후화도 매우 심한 상태다.

그만큼 이곳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원 업무·복지 환경 수준도 떨어져 있다. 경남도교육청 소유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민원센터는 4038㎡ 터에 건물 면적 2463㎡,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이곳도 업무 인원 수는 적지만 진해지역 교육 민원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창원 교육행정기관의 열악함은 곧 지역 인재 양성 부실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창원교육지원청과 진해민원센터를 창원시에 양도하고 시는 옛 육군대학 터에 1만㎡를 도교육청에 양도하는 등 현물 변제를 통한 부동산·토지 교환을 제안한다. 육군대학 터에 창원교육지원청을 설치하고 창원시 석동주민센터를 도교육청 진해민원센터로 이전하자는 건의다.

구체적으로 육대 터 내 교육연구시설지 활용 방안이다. 창원교육지원청을 매각하면 100억 8900만 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진해민원센터 자산 가치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실거래 가액 기준 154억 2800만 원이다. 창원시 소유 육대 터 자산 가치는 평가액 129억 원이다. 창원교육지원청 신축 비용은 최근 착공한 충주교육지원청 신축과 동일한 규모로 비교했을 때 113억 9800만 원이다.

지원청과 민원실 매각 비용 255억 1700만원에서 터 매입과 신축 비용 262억 9800만원을 상계하면 교육청 직접 부담액은 7억~8억 정도이다. 석동주민센터는 최근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 청사가 매우 노후함과 동시에 비좁아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신축하면 100억 정도가 들지만 현물변제 방식으로 진해민원센터로 이전한다면 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은 진해민원센터 예상 개축 비용 49억 원 대비 51억 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창원시 교육행정이 바르게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김 영 미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특별시’가 되길

2016. 8. 25 창원시보 제148호 게재

창원시가 지난 7월 1일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했다. 일상 속 문화로 확산, 예술인 중심 자율 창작환경 조성 등 7대 전략을 중심으로 공연예술 종합연습공간 조성, 문화융합콘텐츠 개발센터 건립 등 2030년까지 약 46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말한다. 한 나라, 한 지역의 경쟁력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경제적 수준과 함께 문화적 역량과 예술수준 또한 한 나라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술인들의 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창원시가 발 빠르게 ‘문화예술특별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문화·예술은 그 도시의 문화적 외교이자 성장 잠재력이며 광의의 인문학이다. 풍부한 문화, 예술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친환경산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한다. 먼저 문화, 예술마케팅 전략과 시민 참여로 통합창원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창원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활성화한 후 관광산업도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시민들은 문화예술은 영화·영상, 음악·공연, 지역축제, 역사문화 등 단조롭다고 말한다. 문화예술 환경은 문화시설과 접근성, 인프라 부족, 공연 및 전시회 부족, 관람기회 부족, 공연장·전시장 대중교통 접근성 미흡 등

아직도 열악하다고 느낀다. 지역예술인들은 문화예술특별시 선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문화예술인 복지·처우개선 등 문화예술특별시로의 변모를 위한 도시 특성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백화점식 정책보다는 특색 있는 예술의 한 장르나 주제를 특성화시켜 찾아오게 하는 적극적인 문화예술 특화정책이 필요하다. 부산은 국제영화제로 영상문화산업을, 해외 사례로 스페인은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해 문화도시로 급부상했다. 다시 방문하고 싶은 예술·문화도시 통합창원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통합브랜드를 속히 선정하고 예술, 문화 산업을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단기적으로 세계 10대 예술, 문화, 관광도시를 벤치마킹하고 장기적으로 문화, 예술 인프라 구축과 문화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예술적 자원을 확장하기 위해 길거리 공연 상설화 지원, 초중고 문화 강좌 신설 등 다양한 문화사업도 병행해 제대로 된 문화예술 특별시로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왜 창원이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하는가?’에 대한 당위성과 메시지를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이 나서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예술특별시’는 창원시의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이 동참하고 의식을 공유해서 만들어 나가고자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콜레라·식중독은 사전예방 잘못된 결과

언론사 게재

배 여 진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창원 모 고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고, 거제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서, 이번 여름도 보건위생에 대한 당국의 대비가 한계점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상고온 현상은 지속적인 가마솥더위로 기록을 경신하였고 태풍마저 비껴간 지난여름은, 먼저 바다에서 그 징조들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경고를 했다. 해수 온도가 30도를 오르내리는데 거기서 안전을 기대한다는 것이 특별한 예방 없이 가능한가?

당국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다. 후진국 병인 콜레라와 식중독이 경남에서 발생한 것을 보며 그 대처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다. 콜레라와 식중독은 개인 차원의 대비만으로 예방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난해 11월 창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해수 수족관 살균정화기 설치 시범사업’ 요구는 바로 오늘의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었다. ‘플라스마 기술’을 활용해 수족관 회 센터·횃집·일식집 등에서 콜레라와 식중독 등 질병들을 사전예방할 정책 수립과 시범 시행을 제안했고, 이 사업은 안상수 창원시장의 간부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해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까지 하는 듯했다.

그러나 아직도 시행되지 않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담당부서는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지원 근거가 없고 상위기관 감사 지적 등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창원 시내에는 약 870개 해수수족관이 설치돼 있다. 이들 중 10%는 마산 앞바다 1km 지점에서 호스를 연결해 공급받고, 그 외 대다수는 활어업체와 물차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해수와 수산물 관리 실패에서 기인해 질병에 노출 정도가 큰 창원에서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관련 정책을 제안했음에도, 지원 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를 한 데 대한 아쉬움은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시의 적극적인 사전예방 중심의 보건위생 정책을 어민과 수산물 관련 소상공인들만의 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제 시민과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을 때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면 시민의 감동은 물론 관광도시 창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성취는 함께 뭉쳐서 오는 보너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창 원 시 의 회
<http://council.changwon.go.kr>